

#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태양광을 흡수해 밤에 자체 발광하는 자전거도로 시범 설치	런던
문화·관광	2	인문사회과학, 예술, 도시와 시민이 하나로 어우러진 인문학 축제 개최	리옹
	5	실용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논의보고서 발표	시드니
	8	도심 광장에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의 창의력을 자극	샌프란시스코
산업·경제	10	국제 전문인력 서비스센터 설치·운영	뮌헨
사회·복지	13	육아 도우미 찾기 포털, “파리의 가족들” 개설	파리
	16	인권행정의 이정표로 활용할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지표’ 작성	오사카
	17	‘도쿄의 아이와 가족’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도쿄
	19	도시차원의 ‘좋은 아버지 되기 운동’ 전개	뉴욕
행재정·교육	21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녹색 경영 리더’ 프로그램 시행	오스틴
환경·안전	22	폐기물 매립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오사카 빛의 숲’ 프로젝트	오사카
도시교통	24	보행자, 자전거, 승용차의 원만한 공존구역인 ‘조우구역’ 조성	베를린
	26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종합교통전략 발표	시드니



## 태양광을 흡수해 밤에 자체 발광하는 자전거도로 시범 설치

런던市 / 도시교통

- 런던市에서는 특수재료로 만들어진 포장재를 이용하여, 낮 시간 동안 태양광을 흡수해 에너지를 저장한 후 야간시간대에 빛을 발하는 140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최근 케임브리지市 주변에 시범적으로 만들었음.
- “Starpath”라고 불리는 이 특수재료는 Pro-Teq라는 기업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야간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Starpath는 주변의 빛 강도에 따라 빛을 발하는 정도가 자연적으로 변하는 특성이 있어 자전거도로 주변 가로등에서 소비되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임의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선과는 달리 야간에 명확히 도로를 구분해줄 수 있어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 자전거도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접촉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Pro-Teq사의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자전거도로 포장기술은 보행친화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우선 포장을 위한 공기가 무척 짧은 장점이 있음. 140m의 시범 자전거도로 설치에 단지 4시간이 소요됨.
  - 독특한 빛을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아름답고 실용적인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함.



낮 동안 흡수한 자외선 빛을 밤 동안 발산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http://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3/10/britain-experimenting-glowing-seemingly-self-aware-e-bike-path/7413/>

<http://www.pro-teqsurfacing.com/pressrelease.html>

## 문화·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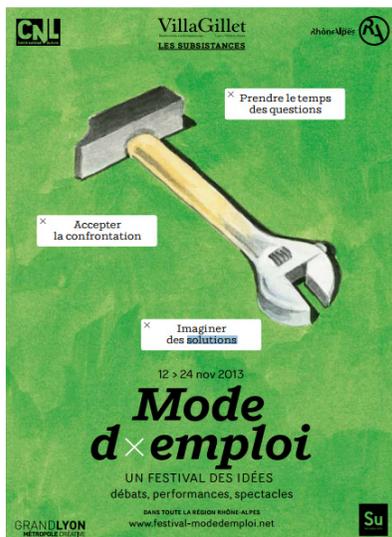
### 인문사회과학, 예술, 도시와 시민이 하나로 어우러진

#### 인문학 축제 개최

프랑스 리옹市 / 문화·관광

- 리옹市는 2012년 11월 인문학 축제인 “사유의 축제: 사용설명서”를 처음 개최해 큰 성공을 거둔데 힘입어, 올해도 11월 12일부터 24일까지 리옹市 주도로 론알프州的 다른 여러 도시들과 협력해 2013년 인문학 축제 “사용설명서”를 개최할 예정임.
- “사용설명서”라는 제목은 인문사회과학이 텍스트에 머무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 예술과의 만남, 실제 도시행정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실용적인 사용법을 이야기하는 자리라는 뜻임. 2012년에는 연구자, 예술가, 행정가,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하에 대중강연과 소규모 토론, 연극과 춤 등 공연예술 형태로 2주간 리옹 곳곳에서 다양한 인문학 행사가 열렸는데, 인문사회과학의 위상이 높은 프랑스뿐 아

나라, 서유럽 전체에서도 독특하고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었음. 처음 열린 2012년에 이 축제는 인터넷 및 전화 사전예약제로 판매된 표가 대부분 매진될 만큼 시민들의 폭발적인 환영을 받았음.



2013년 인문학 축제 “사용설명서”의 포스터

- 이 행사는 리옹市的 인문사회과학 진흥기관인 “빌라 지예”(Villa Jillet)와 공연 예술 진흥기관인 “레 쉽시스탕스”(Les Substances) 두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기획됨.
- 빌라 지예는 1987년 리옹市와 론알프州에 의해 설립되어 문학, 심리학, 교육학, 정치학, 사회과학, 철학, 역사학 등 모든 인문학 분야와 관련된 문화행사를 기획 및 주관하는 기관임. 이 기관은 월별로 진행되는 연간 프로그램을 통해 당대의 학문적 성과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음.
- ‘레 쉽시스탕스’(Les substances)는 ‘생필품’이란 뜻으로 당대의 문화 창조가 프랑스 시민들에게는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으며, 무용, 연극, 서커스, 음악 등의 공연예술 분야에서 수준높은 창작을 기획·공연하는 공연장이자 또한 지원기관임. 다양한 국제 공연단체들이 매월 이 기관의 초대로 리옹市에 찾아와 공연을 선보이는 등 명실상부 리옹 현대예술의 산실임.

- ‘질문할 시간을 내자’, ‘사태를 직면하자’, ‘해답을 상상하자’의 3가지 슬로건을 내세운 인문학 축제 “사용설명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을 목표로 함. 이 축제에서는 ‘우리의 뇌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자연과학적 질문이나 ‘용기란 무엇인가’, ‘영웅이란 무엇인가’ 등의 철학적 질문도 있지만, ‘오늘날의 지방자치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실천적 질문까지 우리가 삶에 대해 묻고 생각하고 해답을 찾아내야 할 질문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이 축제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계몽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꽃피우면서, 함께 진보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구성해 갈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데 있음. 즉,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근간으로 한 시민성에 대해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인 것임.
- 올해는 프랑스뿐 아니라 스웨덴, 미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강연자를 초대하고, 생물학, 영화, 음악학, 법학 등 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기획됨. 초대 손님에는 철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정치학자와 같은 사상가뿐 아니라, 의사, 정책가, 군인, 기자 등 공공생활의 주요 인물들, 그리고 여러 시사적인 문제를 예술로 표현해 온 공연예술가 등이 포함되어 무척 다채로움.
- 기획을 맡은 리옹市の 두 기관에 더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론알프州 전역의 참여 도시들임. 리옹, 생테티엔, 발랑스, 그르노블, 샹베리 등 주변 도시의 총 25개 도서관, 문화센터, 서점, 영화관, 연극 극장, 박물관, 대학 등 지식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들을 연동해서 총 100여 회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열어 매우 역동적인 인문학 축제가 되도록 할 예정임.
  - 축제에 초대된 강사가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다른 도시에서도 강연을 하는 방식으로 좀 더 많은 지역의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있으며, 축제 기간에는 1500여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연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그룹 전문토론도 마련됨.
  - 30여 명의 대학생들이 축제의 스텝으로 직접 참여해, 축제 준비와 함께 축제 기간에 SNS를 통한 실시간 중계와 동영상 촬영 등을 책임짐.

- 이번 축제에서 강연과 대중 토론회는 무료이며, 공연예술은 전 공연 모두 입장료가 8유로(약 11,500원)임.

<http://www.lyon.fr/evenement/festival/festival-mode-demploi.html>

<http://www.villagillet.net/portail/mode-demploi/actualites/>

[http://www.villagillet.net/fileadmin/Contenus\\_site/Tickets/Actualites/programme\\_ME2013\\_LIVE\\_light.pdf](http://www.villagillet.net/fileadmin/Contenus_site/Tickets/Actualites/programme_ME2013_LIVE_light.pdf)

## 실용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논의보고서 발표

호주 시드니市/ 문화·관광

- 시드니市는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장기계획(2030)”에 문화계획을 포함시키고, 장기계획에 부합되는 실용적인 문화정책의 수립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정책논의보고서를 최근 발표함.
- 시드니市는 이 보고서에서 리더십, 도시 강점의 최대 활용, 모든 정부기관의 전사적 참여, 신기술 활용, 파트너십 등을 市의 문화적 노력의 성공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삼고 다음과 같이 나아갈 목표를 제시함.
  - ① 문화예술기반시설이나 예술활동의 양과 질에서의 향상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에서도 창조성이 발현되도록 함(visible), ② 도시 공간이 물리적으로도 문화예술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함(innovation), ③ 시드니市의 현대 커뮤니티가 원주민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면서 이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함(proud), ④ 문화활동이 일상생활과 소비, 여가생활 속에 묻어나도록 함(engaged), ⑤ 시드니市의 다문화성과 언어적 다양성을 도시에 스며들게 함(divere), ⑥ 새로운 기술과 변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펼칠 수 있는 유연한 도시가 되도록 함(bold), ⑦ 도시민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탐색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함(curious) 등 일곱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방향을 잡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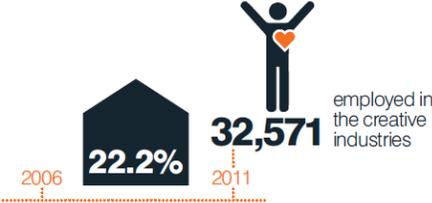
- 시드니시는 6가지 단계를 거쳐 도시문화정책을 수립할 예정인데, 그 첫 단계로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추상적이기 쉬운 문화정책영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 연구의 결과를 알아보기 쉽게 약식 도표로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고, 사전연구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천계획에 대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각 사례연구를 간략히 한 페이지로 작성하여 수록함.



시드니시의 6단계 도시문화정책 수립과정

-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과 시민과의 대화는 물론 관련 분야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사전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와 그림으로 작성하였음.

<p>A community of diversity</p> <p>1/4 One-quarter of City residents are currently attending an educational institution</p> <p>1 in 5 Including more than one in five of those aged 15 and over undertaking a post-school course.</p>	<p>시드니시 거주민의 1/4이 현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중 15세 이상 시민의 1/5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임.</p>
<p>Workforce of the city</p> <p>45% City workforce born overseas</p> <p>Asia 40% Britain 16% NZ 7%</p>	<p>도시 근로인구 중 45%가 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 40%가 아시아인, 16%가 영국인, 7%가 뉴질랜드인으로 다양함.</p>

<p>Visitors to the city</p> <p>On any one night there are about 27,000 visitors staying in the City and annual guest nights now exceed</p>  <p><b>10 million</b></p>	<p>1일에 27,000명이, 연간 천만명 이상이 시드니를 방문함.</p>
<p>Mid-sized venues</p>  <p>Need more rehearsal space</p> 	<p>중간크기의 공연장(락음악, 소규모 연극, 팝, 재즈 등을 공연할 수 있는)과 연습실이 더 필요한 상황임.</p>
<p>Perceptions of cultural access</p>  <p><b>63.6%</b> of the city's resi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number &amp; quality of cultural events in their area.</p>	<p>공연 등 이 지역 문화활동의 접근성에 대해 시민의 63.6%가 만족</p>
<p>Cultural consumption</p> <p>Cinema <b>2 million</b></p> <p>Libraries <b>1.17 million</b></p> <p>Zoos &amp; aquariums <b>1.39 million</b></p> <p>Popular music concerts <b>1.11 million</b></p> <p>Botanic gardens <b>1.24 million</b></p>	<p>크게 영화, 식물원 및 가든, 도서관, 대중문화로 나누어 시민들의 문화소비 규모를 보여줌.</p>
 <p>2006 <b>22.2%</b> 2011 <b>32,571</b> employed in the creative industries</p>	<p>2006년 대비 문화산업 종사자 수는 22% 이상 증가함.</p>

시드니시의 문화 현황에 대한 주요 도표

- 위와 같은 문화 현황을 바탕으로 시드니市는 ① 문화영역 및 창조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 ② 창조활동에 대한 참여도 향상, ③ 활력있고 창조적인 경제발전 추구, ④ 문화를 활용한 상업지구 조성 및 발전, ⑤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파트너십 장려, ⑥ 문화부문에 대한 지속가능성 경쟁력 강화, ⑦ 지식 공유, ⑧ 국제적인 협력 및 성장 지향 등 8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case study) 내용을 함께 수록하여 실용성을 더함.

<p>Creative City</p> <p>Direction 1</p> <p>Improving access, creating markets</p> 	<p>〈정책방향 1〉</p> <p>문화 및 창조영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p>
<p>Case studies</p> <p><b>Adelaide Theatre Passport scheme</b></p> <p>From 1977-85, the Adelaide Festival Centre ran a 'Theatre Passport' scheme. Each year, theatre 'tickets' were made available to every high school student in Adelaide, listing all the performing arts events programmed in that year. In the state's major funded companies and theatres, students could purchase a ticket for \$1 from a pool of uncollected tickets available to each of the presenting companies. High school students, from that time remember, an unparalleled exposure to the performing arts, building their awareness and knowledge of theatre and in many cases, fostering a lifelong love of the arts. As the seats were sold on the day from uncollected stock, there was no lost opportunity cost for the participating companies and the cost of the program was largely contained to marketing children and publicity expenses.</p>  <p><b>Montreux Jazz Festival childcare</b></p> <p>Organisers often struggle to see theatre or music after they have started a family. The cost and difficulty of arranging babysitting is a barrier to attendance that can be hard to overcome. Montreux Jazz Festival in Switzerland have tackled this challenge by providing professional childcare facilities and activities for children 3-10 in walking distance from the performance venues. They report that it has been a significant part of rebuilding audiences between the ages of 16-40.</p> <p><b>AirBikes</b></p> <p>AirBikes is a free bike borrowing service that enables anyone to easily access Hobart's arts precincts and galleries. Available for pick up from a range of locations throughout the city, the program provides a light and strong bike with a built-in smartphone holder, a helmet, lock and map of interesting galleries, cultural precincts and creative hubs. AirBikes is an innovative partnership between Arts Tasmania, Hobart City Council, the Tasmanian government's Creative Connect office and the TACT.</p>	<p>〈사례연구: 구체적인 실천사례 제시〉</p> <p>아델레이드 영화제 극장 패스포트 발급으로 기간 중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몽트로 재즈축제에 놀이방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를 동반한 시민들의 편의 더함, 문화시설마다 무료 자전거대여 서비스 AirBike 제공</p>

시드니 문화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사례 제시 예

<http://sydneyyoursay.com.au/document/show/201>

도심 광장에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의 창의력을 자극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문화·관광

-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도심 광장에 첨단장비로 만들어진 시설물들이 전시되어 주위 사

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음. 시청의 도시혁신실(San Francisco Mayor's Office of Civic Innovation)에 의해 “Living Innovation Zones”이라고 명칭된 이 시설물들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혁신적인 산업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첨단장비 시설물 설치에 어느 샌프란시스코 Bay 지역의 한 기업이 자신들이 개발한 장비를 市와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市가 샌프란시스코 과학관과 협력하여 첨단기술 및 아이디어를 이용해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예술품, 시설물들을 설치해 소개하고 있음.
  - 이러한 시설물들은 현재 IT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혁신적인 산업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한 市와 시민들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음. 市는 이러한 기술 및 아이디어들이 다시금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자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 현재는 다운타운지역에서 시작하여 전시를 시작하였지만, 점진적으로 그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도시 곳곳이 즐거움과 아이디어가 넘쳐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시도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市는 도시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소리가 확대되어 들리도록 고안된 설치물



Musical Bench(벤치의 아무데나 접촉하면 다양한 음악이 나오도록 고안되어 있음)

<http://www.7x7.com/arts-culture/exploratorium-kicks-planning-downtowns-living-innovation-zones-0>

<http://www.indiegogo.com/projects/exploratorium-living-innovation-zone>

<http://www.theatlanticcities.com/neighborhoods/2013/11/san-francisco-rolling-out-high-tech-playgrounds-adults/7474/>

## 산업·경제

### 국제 전문인력 서비스센터 설치·운영

독일 뮌헨市 / 산업·경제

- 뮌헨市는 지난 10월 1일, 외국인청 내에 뮌헨에 체류하는 국제 전문인력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센터를 오픈하였음.
-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은 뮌헨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 뮌헨 IHK(산업 및 상업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뮌헨에는 약 10만 명의 전문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임.
  - 한편, 뮌헨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중 체류 목적을 구직으로 밝힌 사람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음.

- 함부르크와 같은 다른 도시에는 이미 이러한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다른 도시와 비교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임.

- 뮌헨市는 서비스센터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일원화된 체류허가(비자) 업무
- 종합적인 정보 관리를 통한 전문인력의 구직이민에 대한 지원
- 관련 행정 절차의 엄격화 및 통합화
- 구직 시장에서의 구인자와 구직자의 만남 주선 및 사후관리
- 구직 이민과 관련한 기업, 기관, 투자자, 관련 외국 단체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 외국인 전문인력들에게 일반적인 독일 생활에 대한 자문 제공

- 즉, 이 서비스센터는 뮌헨에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체류허가 업무를 비롯하여 일자리 문제에서 숙소, 어학 문제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서비스 대상인 전문인력은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받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업을 마친 자로서, 관리직 사원, 전문가, 학자, 연구자, 예술가, 스포츠 트레이너 등임.
- 서비스팀은 문서를 통해 지원받을 대상을 선별하고, 각각에 대해 독일 체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할 담당자를 배정함.
- 즉, 체류허가 문제, 주거 확보, 육아 보육, 언어 문제, 주거, 교통 등에 대한 사항에 도움을 주게 됨.

- 또한, 구직 이민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구인자들과의 협력 역시 모색하며, IHK를 비롯한 산업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됨.
  - 서비스센터의 직원은 14명이며, 이 가운데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가능자가 포함되어 있음.
-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지 4주가 지났는데, 벌써 관련 업무의 기관 일원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구직 이민과 관련한 기업 및 타 기관들도 서비스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뮌헨시는 향후 유학생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지원 기관을 설립할 예정임.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Referat-fuer-Arbeit-und-Wirtschaft/News/neues-servicecenter.html>

[http://www.muenchen.de/rathaus/dms/Home/Stadtverwaltung/Kreisverwaltungsreferat/allgemein/Startseite/Aktuelles-und-Presse/Dokumente/Service-Center\\_f-r\\_internationale\\_Fachkr-fte\\_neu/Service-Center\\_f%C3%BCr\\_internationale\\_Fachkr%C3%A4fte\\_neu.pdf](http://www.muenchen.de/rathaus/dms/Home/Stadtverwaltung/Kreisverwaltungsreferat/allgemein/Startseite/Aktuelles-und-Presse/Dokumente/Service-Center_f-r_internationale_Fachkr-fte_neu/Service-Center_f%C3%BCr_internationale_Fachkr%C3%A4fte_neu.pdf)

<http://www.abendzeitung-muenchen.de/inhalt.neues-service-center-im-kvr-willkommen-fachkraefte.0c861740-0648-458f-be1c-20c00283036d.html>

## 사회·복지

### 육아 도우미 찾기 포털, “파리의 가족들” 개설

파리市 / 사회·복지

- 파리市는 젊은 부모들의 아이 돌보기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파리의 가족들”(lestribus.paris.fr)이란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부모들이 무료로 손쉽게 입주 보모, 육아 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가정에서 필요한 방식대로 육아 서비스 제공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파리의 가족들” 포털사이트 개설 배경
  - 파리市는 3세 이하 유아의 어린이집 수용률에서 프랑스 전국 평균(15%)을 훨씬 웃도는 비율(40%)을 보이고 있고(2013/2014학년도 기준),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아이들을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돌볼 수 있는 여러 방식의 서비스를 찾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2010년에 파리 13區 구청에서는 혁신적인 제안을 내놨음. 즉 대학생들과 젊은 부모가 밀집한 13구의 거주민 상황에 주목하여, 각 가정과 학생들이 베이비시터를 구인/구직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것임. 그 사이트 이름이 “13구의 가족들”인데, 이 사이트를 통해 지난 2년간 파리 13구의 많은 주민들이 그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대로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 있었고, 학생들도 약간의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임.
  - 이 사이트가 성공을 거둠에 따라, 13구 구청과 파리 시청은 같은 서비스를 파리市 전체로 확대해 제공하기로 하고 “파리의 가족들”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음.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파리市의 각 가정은 지금 집 근처에 사는 베이비시터를 필요한 방식대로 찾을 수 있게 됨.

-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부모들은 1)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돌봄 서비스의 유형(입주보호, 육아 도우미, 베이비시터, 돌봄 나눔, 베이비시터 나눔, 아이의 문화활동 외출동반 등)을 선택한 후, 2)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지역을 명시(집, 문화센터, 박물관 등의 위치, 구글맵 연동)하고, 3) 상세검색 메뉴를 활용하면, 아이의 연령과 돌봄 시간대(방과 후, 평일 오후 등)을 지정해서 검색,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찾을 수 있음.



“파리의 가족들” 포털사이트의 첫 화면(오른쪽 노란 사각형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돌봄 양식과 희망 지역(구)를 지정해 검색할 수 있고, 왼쪽 초록색 사각형은 구직자를 위한 것임. 화면 하단에는 최신의 구직, 구인 정보가 자동으로 게시됨)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1) 부모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돌봄 방식과 가기 쉬운 지역을 선정할 후, 2) 본인의 구직 광고에 지원한 학부모가 없는 경우엔, 상세검색 메뉴를 활용해 기존에 올라온 구인 광고 중에서 부모의 희망사항을 보고 직접 지원할 수 있음.
- 이 사이트의 주요 목적은 부모와 육아 서비스 제공자 간에 상호 찾기 쉽도록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파리시에서는 계약관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며, 근무조건 협상은 사용자 간에 일대일로 이루어짐. 그러나 이 사이트는 서로 다른 돌봄 서비스의 정의(근무형태, 보조금 지급 여부)와 표준계약서, 근무조건 협상의 기초 사항 등의 실용적인 정보를 별도 메뉴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육아 서비스에도 부모와 육아 도우미 간에 엄격한 계약관계 위에서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 각 육아 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보모** : 아이 부모에게 직접 고용되며, 아이의 집에서 아이를 직접 돌봄. 두 가정에서 한 명의 보모를 함께 고용할 수도 있음. 급여는 부모와 도우미 사이에 직접 협상됨. 이 사이트에서는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보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 연락처를 제공하며, 부모와 보모 간 면접시에 확인되어야 할 기본 사항들이나 근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이드북도 제공함.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해 보모를 고용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과 세금 액수에 따라 차등된 CAF(가족지원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7세 이상 아동의 경우엔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CESU(포괄적 서비스 고용수표)를 통해 자동으로 피고용자의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육아 도우미** : 개인에게 고용된 육아 도우미는 육아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며, 市の “모성 및 아동 보호국”의 관리대상임. 급여는 육아 도우미와 부모 간에 직접 협상되며, 고용 사실을 신고하면 부모는 CAF의 보조금과 함께 다른 감세 혜택을 받음. 市는 육아도우미들이 근무시간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인 “육아 도우미 쉼터”를 운영함. 한 명의 육아 도우미는 최고 4명의 아이까지만 돌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음.
- **베이비시터 및 아이의 문화활동 동반** : 베이비시터는 보통 방과 후 학교에서 아이를 찾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간단히 간식을 먹이고 스스로 숙제를 하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활동(숙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시켜서 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음) 등이며, 수업이 없는 수요일에는 문화센터, 박물관을 가는 등 아이의 규칙적인 외출에 동반하기도 함. 시간제 계약으로서 CESU(포괄적 서비스 고용수표)를 통해 고용상황이 확인됨. CESU를 이용하기 위해 피고용자는 이름, 주소, 고용인 성명, 본인의 사회보장번호, 국적(비EU 국가 출신자), 노동허가증, 근무 장소, 근무일정 및 근무시간, 주당 근무시간, 근무내용, 보수 총액, 시험 근무기간 등을 명확히 제출해야 함. 급여 외의 사항은 표준 고용계약(기간제, 비기간제)을 따름. 피고용인은 민사책임보험 증서를 고용시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임(대개 본인의 보험구조나 은행계좌를 통해 월 만 원 내외로 가입할 수 있음). 통상적인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세금공제 전 시간당 10유로(약 14,400원), 2013년 기준)임.

- 돌봄 나눔 : 여러 부모가 일정을 정해 아이들을 번갈아 돌보는 것임. 즉, 양육을 책임진 부모(예를 들어 엄마)가 매일 아이의 일정에 매일 필요 없이,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엄마와 번갈아서 등하교를 시킨다거나 집에서 돌보는 것임.
- 육아 돌보미 나눔 : 1명의 베이비시터가 두 가족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것임. 양쪽 집에 번갈아 가서 근무하고 아이들은 돌보미가 있는 집에 모여서 놀게 됨. 이 돌봄 형식은 아이가 혼자 놀지 않고 비슷한 또래의 친구와 놀 수 있으며, 돌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집 부모 사이에 서로 잘 이해하고, 두 집이 위치상 가깝고, 똑같은 시간표로 부모가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데, 정보 부족으로 이러한 조건으로 돌보미를 구하기는 보통 어렵기 때문에 “파리의 가족들” 같은 포털 사이트가 매우 도움을 줌. 기타 고용조건은 육아 돌보미 표준계약서를 따름.

[http://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les-tribus-de-paris-trouvez-une-nounou-en-trois-clics/rub\\_1\\_actu\\_132088\\_port\\_24329](http://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les-tribus-de-paris-trouvez-une-nounou-en-trois-clics/rub_1_actu_132088_port_24329)

## 인권행정의 이정표로 활용할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지표’

### 작성

일본 오사카市 / 사회·복지

- 오사카市 시민국은 시민들이 인권이 존중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매년 인권 관련 지표인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지표’를 작성하기로 함.
-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지표’에서는 오사카市가 추진하는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 등과 관련된 각종 과제들에 대한 시책 및 사업 등을 지표 항목으로 내걸고, 진행 상황 등을 데이터로 표시하게 됨.
  - 지표는 인권을 둘러싼 과제에 대한 현황 인식, 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과 목표 등을 나타내는 지표 총 54 항목과 그 성과가 되는 기본 지표(시민 의식) 15항목 등 총 69 항목으로 구성됨.

### 다양한 인권 과제의 기본 대상 및 목표

여자	여자가 일, 가정, 지역 생활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도시
유아	어린이들의 웃는 얼굴과 개성이 빛나는 도시
노인	노인이 삶에 보람을 가지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이 함께 살고 활동하는 도시
동화 문제	차별 없는 도시
외국 국적 주민	다문화 공생의 도시
개인 정보 보호	개인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도시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도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
노숙자	노숙자가 지역사회에서 다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도시

- 각 지표의 수치는 기본 계획 및 운영 방침 시책 목표에서 추출한 항목의 경우 각 년도의 현황 수치와 목표 수치를 기본으로 하고, 현황 수치는 현재의 최신 자료를 반영하도록 함. 또한, 시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연도별 실적에서 설정한 항목 등에서 목표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 항목도 최신 현황 수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 오사카市가 진행하는 각 과제의 기본 계획, 실시계획 또는 담당 부서의 운영 방침의 변경뿐만 아니라, 사회 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지표 항목의 재검토나 수정을 실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인권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
- 작성된 지표는 책자로 만들어 시청, 구청 및 각 구청 출장소 그리고 오사카 인권개발·상담센터 시민정보플라자에서 누구나 열람 및 수령할 수 있도록 함.

<http://www.city.osaka.lg.jp/hodoshiryo/shimin/0000240246.html>

<http://www.city.osaka.lg.jp/hodoshiryo/cmsfiles/contents/0000240/240246/25sihyou.pdf>

## ‘도쿄의 아이와 가족’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도쿄都 / 사회·복지

- 도쿄都 복지보건국은 매 5년마다 조사하는 ‘도쿄의 아이와 가족’에 대한 조사결과를 10월 24일 발표하였음. 이번 조사는 도쿄都 내에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의 생활실태

및 양육상태를 파악하고, 도민의 자녀가정복지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 조사는 작년 2012년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1982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여 이번 조사가 7번째 조사임.

- 조사 대상자는 도쿄都 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로 주민 기본대장에서 무작위 추출한 4,800세대와, 도쿄都 내에 거주하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편부모 세대로 주민기본대장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200 세대의 자녀의 부친 또는 모친임.

-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맞벌이 부부의 비율과 막내의 연령이 1세 미만인 세대가 현저히 증가함을 보였음.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53.8%로 전 회 조사의 46.1%보다 7.7% 증가함. 막내의 연령이 1세 미만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43%로 2008년 29.9%보다 13.1퍼센트 증가하였음.
- 여성이 향후 일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짧은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답한 응답자가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응답은 22.4%였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응답한 사람이 58.7%로 전체보다 약간 낮았으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응답은 48.2%로 전체보다 2배 이상 높았음.
- 낮 시간대에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세대에 대해 양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육소, 아동관, 아동가정지원 센터가 제공하는 양육서비스 등”에 아이를 맡긴 경우가 54.6%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2008년도 47.6%보다 7%p 증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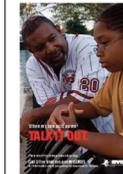
<http://www.metro.tokyo.jp/INET/CHOUSA/2013/10/60nao200.htm>

<http://www.metro.tokyo.jp/INET/CHOUSA/2013/10/DATA/60nao200.pdf>

## 도시차원의 ‘좋은 아버지 되기 운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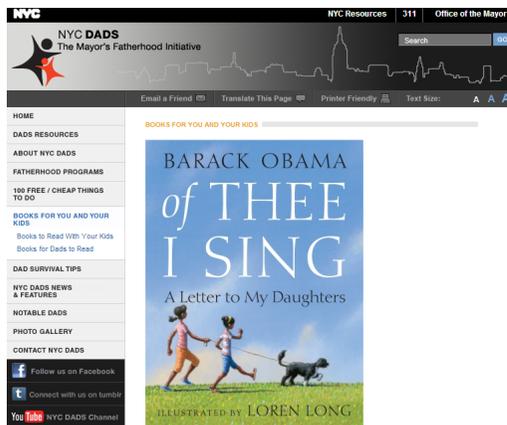
뉴욕市/ 사회·복지

- 미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가정의 화목과 안녕,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을 위해 1994년부터 “좋은 아버지 되기 이니셔티브”(The National Fatherhood Initiative(NFI))를 진행해 왔음. 이에 뉴욕市는 도시정부 차원의 가정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좋은 아버지 되기 운동”을 강화하고 있음.
- 이니셔티브의 내용은 크게 ① 식사 함께하기, ②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③ 격려 해주기, ④ 존중하기(아이와 아이 엄마를 함께 존중하기), ⑤ 대화하기(아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하기), ⑥ 함께 시간보내기, ⑦ 함께 책읽기, ⑧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되기, ⑨ 평생 아버지로서 노력하기, ⑩ 많이 안아주고 입 맞추주기 등 10가지로 나누어져 있음. 아버지들은 <http://www.fatherhood.org/>에서 매일, 매주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법과 교재,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과 같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SNS 등의 매체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음.

<b>1. EAT TOGETHER</b> 	<b>2. LISTEN</b> 	<b>3. ENCOURAGE</b> 	<b>4. RESPECT</b> 	<b>5. TALK IT OUT</b> 	<b>6. SPEND TIME TOGETHER</b> 	<b>7. READ</b> 
<b>8. BE A ROLE MODEL</b> 						
<b>9. A FATHER'S JOB IS NEVER DONE</b> 						
<b>10. HUG AND KISS</b> 						

좋은 아버지 되기 이니셔티브의 10가지 내용

- 뉴욕시는 ‘좋은 아버지 되기 이니셔티브’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의 리스트와 내용, 방법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과 직장일로 바빠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식생활정보, 건강 검진 등 남성건강과 관련된 일반 정보와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팁도 제공함.
- 매년 도시정부차원에서 좋은 아버지를 선정하여 수상하고, “아빠와 함께하기”를 주제로 자전거타기, 학교 함께 가는 날, 야외 바비큐 행사, 각종 휴일에 하는 파티 등을 주관하여 진행함.
- 저소득층이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더 깊은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을 돕는 프로그램), 취업과 가정경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직업교육 및 지식교육 등과 연계하여 시행함.
- 도시정부 및 교육 전문가들이 선정한 ‘아빠와 함께 읽는 아이 연령대별 도서’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



뉴욕시의 ‘좋은 아버지 되기 이니셔티브’ 사이트

[http://www.nyc.gov/html/hra/nycdads/html/campaign/10\\_ways.shtml](http://www.nyc.gov/html/hra/nycdads/html/campaign/10_ways.shtml)

[http://www.nyc.gov/html/hra/nycdads/downloads/pdf/nyc\\_dads\\_bio\\_launch.pdf](http://www.nyc.gov/html/hra/nycdads/downloads/pdf/nyc_dads_bio_launch.pdf)

## 행재정·교육

###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녹색 경영 리더’ 프로그램 시행

미국 오스틴市 / 행재정·교육

- 오스틴市는 도시발전을 위한 지속가능성 활동의 일환으로 ‘녹색 경영 리더’(Austin Green Business Leaders)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오스틴市의 지속가능성 활동 중 하나로, 현재 지역 내 100여 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활동에 참여 및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오스틴 녹색 경영 리더’ 프로그램은 음식점, 세탁소, 식료품점, 건설회사, 화훼업체, 첨단산업 기업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까지 104개의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스틴市는 에너지 효율, 수자원 효율, 지속가능한 교육, 자원 효율, 혁신적인 교통, 건강한 작업 환경, 지역 내 봉사 등으로 나누어 상을 수여함으로써 지속가능성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기업은 건축물 내 난방을 위한 태양열의 사용, 수자원 보존을 위한 화장실 절수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또 다른 기업은 고효율 전등, 태양열 전지 등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 상을 받았음.
  - 또한, 지역의 한 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녹색환경 또는 제품에 대한 교육과, 지역 예술가 공연 등을 유치하고, 사회연결망 서비스 및 뉴스레터지를 이용하여 친환경 활동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교육과 통합, 그리고 친환경 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속가능한 교육 부문에서 상을 받음.
  - 한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또 다른 기업은 카풀시스템 장려, 자전거 통근자에 대한 사물함 및 샤워시설 제공, 원거리 통근자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인 교통 부문에서 수상함.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기업은 기업 내 인력의 75%를 재활센터로부터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90% 이상의 직원들이 재발하지 않는 등의 성과를 보임.

<http://www.austintexas.gov/article/city-recognizes-over-100-local-businesses-being-green-leaders>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green-business-leaders-program-presents-annual-awards>

## 환경·안전

### 폐기물 매립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오사카 빛의 숲' 프로젝트

일본 오사카市 / 환경·안전

- 오사카市 환경국은 도시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고 환경 교육과 지역 공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여 일반폐기물 매립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메가 솔라)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2013년 11월 1일부터는 장비 조정 등의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함.
- '오사카의 빛의 숲'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프로젝트의 개요

대상지	오사카市 코노하나區 폐기물 매립지 중 일부
발전 규모	10MW(메가와트), 표준 가정용 전력 소비량의 약 3,200세대 분 상당
사업 실시 주체	오사카시, 스미토모 상사, 주식회사 미쓰이, 스미토모 금융 및 리스, 서미트 에너지 주식회사

- 도시 폐기물 처리장을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통해, 도시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폐기물 매립지를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창조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킴.

- 오사카市가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기업은 자금과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설치를 민관 협동에 의한 사회공헌의 장으로 발전시킴.
- 여러 기업이 모여 함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환경 공헌과 지역 산업에 대한 기여를 동시에 이끌어 냄.
-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환경 교육의 교재로 활용하거나, 전기 판매 수익의 일부를 오사카市의 환경 교육에 지원함.



‘오사카의 빛의 숲’ 현장 모습

<http://www.city.osaka.lg.jp/hodoshiryo/kankyo/0000241399.html>

# 도시교통

## 보행자, 자전거, 승용차의 원만한 공존구역인

### ‘조우구역’ 조성

베를린市 / 도시교통

- 베를린市는 보행자, 자전거, 승용차가 함께 이용하고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도로구역 조성을 위한 첫 시범사업에 착수함. 이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과 소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현재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을 개설해 의견들을 모으고 있음.
- 베를린市는 전체도로의 29%가 보행자 전용도로인 보행친화도시임. 도심에서도 201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친보행교통전략에 의해 승용차보다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음. 보행자, 자전거, 승용차의 원만한 공존구역인 일명 "Begegnungszonen( 조우(遭遇)구역)"의 설정도 친보행교통전략 사업의 하나임.
  - ‘조우구역’은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로구역의 명칭임. 스위스의 경우, 조우구역은 전적으로 보행자 우위의 구역을 지칭함. 그러나 베를린市는 市의 사정에 맞게 이 구역을 승용차 운행도 가능하게 하면서 보행과 자전거교통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도로체류도 즐길 수 있는 구역으로 조성하고자 함. 그래서 市는 시민들에게 이 구역에 대한 새롭고 개성 있는 명칭을 제안받고 있음.
- 市의 첫 조우구역으로 조성될 도로는 마아쎌街(Maaßenstraße)임. 마아쎌街는 템펠호프-쇠네베르크區의 주택가 도로로서 대중교통이 통과하지 않지만 많은 카페와 바, 크고 작은 식당들이 몰려 있어 매일 5천명의 보행자, 4천대의 승용차, 수천대의 자전거가 오가는 도로임. 특히 주말에는 거리 끝에 위치한 광장에서 주말장터가 열려 150미터 길이의 이 도로는 매우 혼잡함.
  - 현재 자동차 도로폭은 차도 8미터와 차도변의 주차면적을 포함해 15미터이지만, 앞으로 차도는 5.5~6.5미터 정도로 좁혀지게 되고 차도변의 주차면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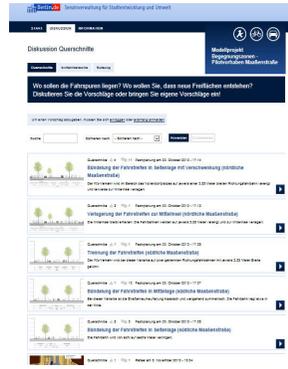
완전히 없어질 예정임. 그 대신 현재 19미터의 보도폭은 약 28미터로 확장될 예정임. 그렇게 되면 보도위의 나무와 주변 카페와 레스토랑의 노천테이블로 인해 비좁던 보도가 여유로워지고 보행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벤치도 설치할 수 있게 됨. 市는 마아쎄가의 조우구역에서 자동차 속도를 20킬로로 제한할 계획임.

- 市는 이 계획에 주민들을 가능한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조우구역조성에 대한 공고를 하였고 몇 가지 도로 디자인들을 소개함. 그리고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을 개설함으로써 도시계획과 결정과정에 주민참여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도구를 마련함.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begegnungszonen.berlin.de”를 통해 마아쎄가의 주민과 상인들, 그 밖의 관심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도로공간이 보행자, 자전거, 승용차를 위해 분할되어야 할 것인지, 조우구역의 입구와 출구는 어떻게 명시되면 좋을지, 새로 생긴 여유 공간은 어떤 용도로 조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또 예시된 디자인에 대해 선호도와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음. 예시된 디자인 외에도 시민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설계도 제안할 수 있음. 다만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市는 전면적인 공사가 필요한 디자인 제안은 자제하도록 당부함. 또한 市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이번 온라인 참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로 함. 이밖에도 도로포장 재료, 앉을 수 있는 장소 위치, 자전거 및 자동차 주차시설, 기타시설 등도 시민토론에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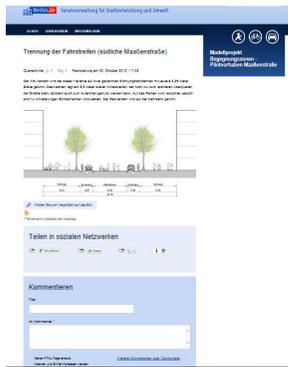
- 2015년에 마에쎄가 조우구역이 완성되면 市는 곧이어 베를린의 대표적 젊음의 거리인 베르크만街(Bergmannstraße)의 500미터 도로와 구베를린장벽의 주검문소가 위치한 관광명소 체크포인트 찰리(Checkpoint Charlie) 주변도로도 조우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임. 이곳은 시속 10킬로미터로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게 됨.



조우구역 조성사업 포스터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의 토론장: 도로디자인 선택



도로디자인 예: 차도중앙에 휴식공간 설치



도로입구 로타리 디자인 예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310/nachricht5097.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310/nachricht5097.html)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verkehr/politik\\_planung/fussgaenger/strategie/de/begegnungszonen.shtml#varianten](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verkehr/politik_planung/fussgaenger/strategie/de/begegnungszonen.shtml#varianten)

<http://begegnungszonen.berlin.de/node/1052/diskutieren/40>

<http://www.berliner-zeitung.de/berlin/maassenstrasse-in-schoeneberg-mit-tempo-20-durch-schoeneberg,10809148,24843426.html>

##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종합교통전략 발표

호주 시드니시 / 도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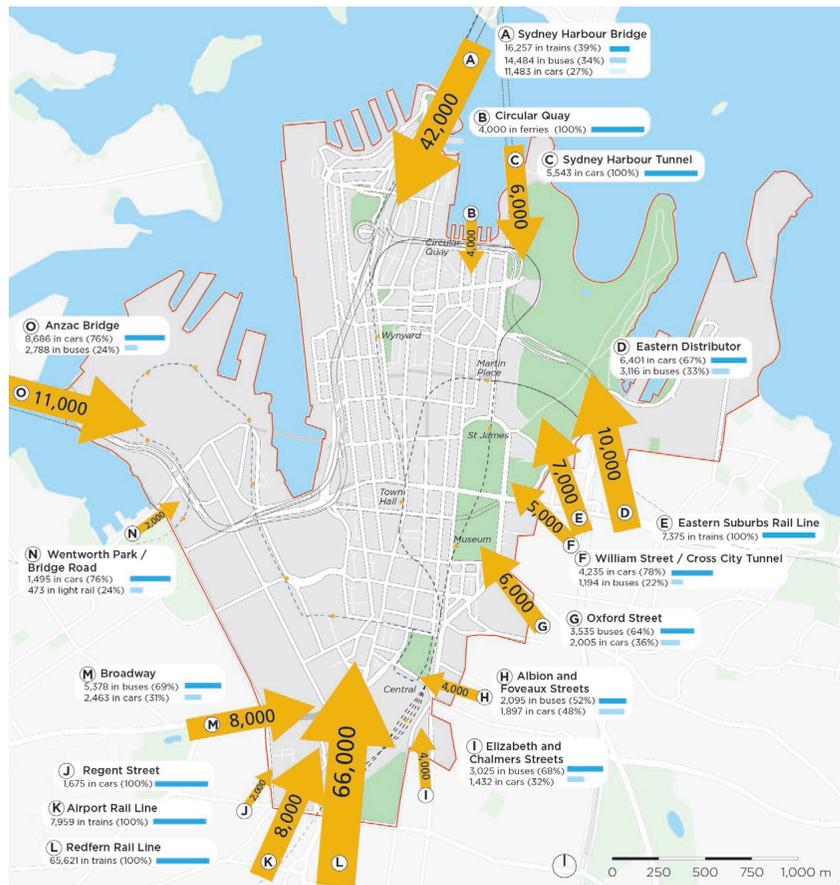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는 시드니시의 교통 수용능력에 기초한 중

합적이고 세부적인 교통 개선 방안인 ‘시드니 도심 접근성 향상 전략 (Sydney’s City Centre Access Strategy)’ 보고서를 최근 발표함. 이 보고서는 주정부에서 마련한 최초의 교통전략으로서, 지난 20년간 도심의 교통 유입 및 유출 등의 기초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세부 거리의 교통량과 흐름, 그리고 개별 교통수단 활용방안 등에 대한 장기 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 시드니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은 평일 기준으로 630,000건에 달하는데, 2031년에는 150,000건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이 전략은 이에 맞추어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도심의 지역별 그리고 거리별 교통량과 흐름에 기반하여 차별적인 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임.
  - 이 전략은 또한 평일 도심의 인구 이동의 대부분이 도보 여행임을 감안해, 보행자 혼잡 구간을 파악하여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정표 개선 및 안전조치 강화 등도 포함하고 있음.
- 이 전략이 시행되면 도심으로의 유입이 더욱 더 대중교통에 의존하게 됨과 동시에, 기존의 도심 인구 이동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는 기차가 도심 교통 유입의 주요수단으로 더욱 공고화되며, 이를 위해 경전철 라인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대신에 출근 시간에 도심으로 유입되는 버스를 줄임으로써 교통 혼잡을 감소시킴. 또한, 페리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페리 부두를 신규로 개설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페리를 이용하여 도심에 접근하도록 함. 주요 실행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 도심의 서부로부터 써큘러 키(Circular Quay)와 센트럴(Central)로 운행되는 경전철은 기존 버스 유입에 의존해 왔던 동부 지역으로 연장되어 출근 시간에 220대의 버스 유입을 감소시킴. 아울러, 2층 버스를 이용하여, 버스 댓수 감소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를 상쇄함.
  - 도심의 버스 전용 차선을 증가시키고, 도심 보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 도로를 신설함. 또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도심 일부 지역에 시속 40km 구간을 지정함.

- 기존 자동차 거리 주차 구역을 재조정하고, 택시와 화물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을 더욱 확대하는 등 도심 주차구역을 변경함. 자전거 전용도로를 도심까지 연장하여 속도 감소와 안전위험 없이 자전거를 이용한 도심 접근을 가능하게 함.
- 24시간 도심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책임지고 관리할 '도심 교통 특별팀(City Centre Transport Task Force)'을 구성함.

- 이 전략보고서는 뉴사우스웨일즈주 홈페이지(<http://engage.haveyoursay.nsw.gov.au/document/show/1053>)를 통해 볼 수 있음.



출근시간 시드니 도심 교통 유입도

<http://www.transport.nsw.gov.au/media-releases/new-city-centre-access-strategy-unlock-sydneys-capacity>